

# 선율과 리듬의 매혹을 넘어서

대중문화 시대를 이끄는 책 ③

강헌

대중음악평론가

아무리 대중음악이 영화와 함께 당대의 문화를 규정하는 지배적인 장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관한' 이론적 정보적 진술까지 관심 있는 것은 아니다. 단적으로 말해 문화산업 시대에 들어선 이 땅의 대중은 자신이 매료된, 혹은 매료될 준비가 되어 있는 음반을 구입하는 데 아무런 회의를 하지 않지만 이 문화적 행위를 '사유'할 단계의 문은 아직 열여섯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동안 아카데미즘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었던 이 분야에 대해 간신히 눈뜨기 시작한 젊은 크리티시즘 진영을 겨우 소비층으로 가질 뿐이다.

## 대중음악의 '사유'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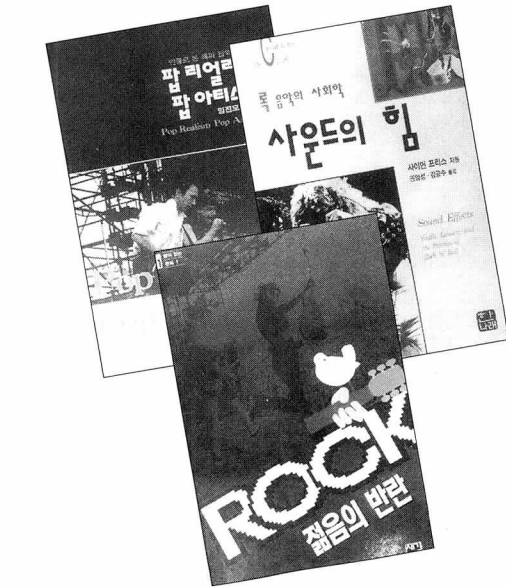
동네의 작은 서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음악관련 서적은 브로마이드성이 짙은 십대 취향의 잡지 아니면 매달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노래 약보집 정도이며, 이른바 대형서점의 음악 코너에서도 음악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책 역시 극히 드문 실정이다.

현실이 그러하다고 슬퍼하거나 노할 필요는 없다. 90년대를 분기점으로 이 영역에 대한 관심은 비약적으로 전진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을 수행할 젊은 이론가와 비평가들이 저널리즘의 지평에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개방박두의 시점에서 앙상한 서가를 그나마 빛낸 리스트를 점검해 보자.

먼저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신음악의 철학》(까지 1986)을 소개한다. 아도르노가 '드디어' 서거했을 때 어느 평론가는 "왕은 죽었다! 공화국 만세!"라는 조문(?)을 썼다. 그가 평생을 휘둘러온 비판이라는 이름의 철권 통치는 어떤 작곡가나 음악학자에게도 고문같은 것이었으리라.

신음악의 창시자 쇤베르크에 대한 강철같은 옹호와 스트라빈스키에 대한 유혈낭자한 공격이 200쪽을 사이 좋게 나누고 있는 이 탄환같은 책은 사실 쇤베르크나 스트라빈스키의 음악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그는 음악을 적어도 자신처럼 들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오만은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애호하는 사람들까지도 한번쯤은 마음 먹고 존중해줄 만한 것이다. 어, 그런데 이 화려무쌍한 책이 십년도 안되어 절판인가?

주변의 관점에서 중심의 헤게모니를 어떻



90년대를 분기점으로 대중음악의 크리티시즘이 발화하기 시작한다. 사진은 '롤라'의 공연 모습.

게 파악할 것인가? 무비판적 추수? 아니면 문화제국주의라는 무자비한 딱지? 이제 이 지배적인 문화양식에 대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많은 정보가 아니라 보다 균형이 잡힌 관점이다.

아도르노가 '진보'와 '복고'로 나누었다면 기자 출신의 저자 임진모씨가 펴낸 《팝 리얼리즘 팝 아티스트》(대륙, 1993)는 '저항'

**대중음악이 영화와 함께 당대의 문화를 규정하는 지배적인 장르이긴 하나 아직 그에 관한 '사유'의 문은 열여섯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브로마이드성 짙은 십대 취향의 잡지나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노래약보집 정도가 고작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젊은 이론가들이 저널리즘 지평에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과 '순응'의 이분법으로 서구의 선율과 리듬에 접근한다.

앞의 책과는 달리 평이하게 씌어졌지만 이 책이 포착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리 녹록치 않다. 왜냐하면 이 비평 묶음은 팝과 록에 '미친' 어느 매니어의 독단적인 자기 고백이 아니라 2차 대전 이후 서구의 사회사를 바탕으로 순도 높은 비평의 정보들을 꼼꼼하게 포섭함으로써 지금, 여기의 관점에서 이 지

배적인 문화의 내면을 여행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 책으로 우리는 길을 시작한다.

한편 《민족음악론》(노동은 이견용 공저, 한길사, 1990)은 우리의 감수성을 저당잡고 있는 이 땅의 음악적 질서가 형성되는 지점으로 안내해주는 책이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받은 초중등교과 과정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가를 냉정하게 해부한다. 읽는 재미는 없다. 그것은 이 저자들이 교수로서의 자질이 아니라 우리의 근대 음악사가 너무나 걸레같이 때문이다.

그래서 이 500쪽이 가까운 책은 무신경한 우리의 정신적 면죄부이며 흥난파를 한국 음악의 아버지로 배워왔던 우리의 불우한 교육에 대한 이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공격의 신호탄이다. 해방 오십년이 되는 시점에 있어서도 여전히 <감격시대>를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연히 연주하는 이 저주받은 역사에 대해 이 책의 2부는 세세하게 접근한다. 이 정도는 대학 신입생들의 교양 필독서의 목록에 올라야 한다.

그리고 <한국민족주의운동사>(이정식, 지음, 미래사, 1982)가 있다. 왜 느닷없는 민족주의, 그리고 운동사인가? 혁명에 대한 열망으로 들떴던 우리의 지난 시대에 '민족주의'는 기회주의의 다른 이름과도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민족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던 것일까?

스칼라피노와의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로 알려진 재미학자 이정식의 이 책은 영국이나 프랑스같은 유럽 제국의 식민지가 되지 못했던 나라의 민족주의의 성격과 전개를 정치하게 파고 든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현단계 우리 대중문화의 내면의 골격을 이루는 무의식이기도 하다. 우리의 20세기 문화를 단지 그 자체의 질로만 규명하려 한다면 그 또한 얼마나 오색한 말의 잔치가 될 것인가? 흡스 봄 같은 대가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역시 문화는 정치의 하위 개념인 것이다.

## 음악적 질서 안내

사이먼 프리스의 《사운드의 힘》(한나래, 1995)은 드디어 서구 대중음악에 대한 '고전' 격인 책 한권으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었다. '청년, 레저, 그리고 록큰롤의 정치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의 주제는 바로 마지막 문장인, 즉 "록의 역사는 미국 자체의 역사처럼, (재미를 위한)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록 담론의 주도권을 놓고 노골적으로 대치해온 영미간의 관점 차리를 엿볼 수 있는 것도 흥미로운 일인데, 영국에서 태어나 옥스퍼드를 거쳐 미국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영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 역시 어쩔 수 없는 영국인이다.

마지막으로 강준만 교수의 《대중문화의 걸과 속》을 주목해본다. 여전히 DJ는 한국 사회의 최고의 쟁점이며 이 책의 저자는 무시무시한 제목을 달고 있는, 그에 관한 책으로 남성 대상의 잡지 창간호 표지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저널리즘의 공간에서 총횡무진해온 이 지방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백미는 바로 이 '작은' 책이다. 여기엔 '지금-여기' 대중문화에 대해 단속적이지만 발 빠른 통찰이 담겨 있다.